

(물음 1)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세 가지를 쓰고, 각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.

: 비공지성, 경제적 유용성, 비밀 관리성

(물음 2) 사례 1의 갑이 퇴직 후 납품한 제품이 을 회사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모방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갑이 베셋사 등과 접촉한 시기가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뒤 퇴사가 임박한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. (무효라면 을 회사에게 무엇이 없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실시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함)

: (경업금지약정 위반) 갑이 을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해외 생산거점과 수요처에 대한 정보는 영업상의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이라고 판단된다. 만약 갑이 퇴직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합리적인 기간이라면, 을의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.

(물음 3) 사례 2의 갑회사가 을 회사 및 병에게 취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법상 민사적 구제수단을 4개 이상 나열하시오.

: 금지 및 예방 청구, 폐기 및 제거 등 청구, 손해배상 청구, 신용회복조치 청구

(물음 4) 사례 2의 병은 갑회사와 일하는 (근로를 제공하는) 근로자와 사용하는 (지휘·감독하는)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,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인 (1)과 입사 시 혹은 퇴직 후 기간을 정하여 근로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의 유출을 금지할 것과 같은 비밀유지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한 문서인 (2)를 작성하였다. (1)과 (2)는 각각 무엇인가?

: (1) 근로계약서 (2) 비밀유지서약서

(물음 5) 사례 2의 갑 회사가 병의 침해행위를 안 지 5년이 지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과가 어떠한지,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.

: (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소송 인정)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시효는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,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유효하다. 따라서 사례2는 시효를 지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.